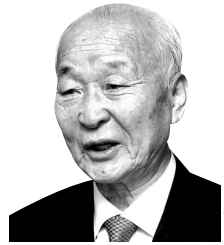


5월의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선진규
봉하정토수련원장

사람이 영원토록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 질서와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발생한 초자연적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적 현상(緣起的現象)이라 합니다. 이 법칙은 틈나바퀴같이 짜여져 있어 개인이나 사회 더 나아가 대자연의 움직임까지 모두가 이 궤도를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큰 폐해(弊害)를 당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무시(無始)로 이 대자연의 질서인 성(成) 주(住) 괴(壞) 공(空) 즉, 일어나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변화속에 생(生) 노(老) 병(病) 사(死)하는 작은 개체는 전체속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큰 나(大我)를 불교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존재는 변화하는 대자연

의 일원으로서 남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며 자신을 버리는 수행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불교적 생활 규범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부처님께서 태자로 계실때 이런 근본적 자연 질서와 규범을 직시하고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분쟁, 강압과 착취, 서민과 노예의 고통 등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규범을 보시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끝에 부귀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구도(求道)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이 위대한 출가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애도하는 추모의 슬픔이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자연 질서와 사회규범을 알지 못한 무지서 나타난 기성세대의 고질적인 탐진치(貪瞋癡) 삼독심의 산물이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독립된 사건, 우연한 참사가 아니라 한국인만이 갖는 성급한 요행문화, 나만이 잘되면 된다는 개인주의

의, 절제되지 않는 욕심과 어리석음의 문화, 서구정신문화가 갖고온 배타와 독선의 유일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언제 어디서 제 2의 세월호 사건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런 고질적 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정신문화의 도덕성 결여가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칠때 지행일치(知行一致) 양익양륜(兩翼兩輪)이라 해서 지식과 도덕적 행위는 날개의 바퀴와 같다고 분명히 지식과 도덕을 균형있게 교육하고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배교품을 면하기 위해 실현해온 급성장의 산업화가 청소년 교육까지 이 어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폐해로 도덕성까지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도덕적 장애를 치유 하는 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그 길은 오랜기간 자기를 버리고 근원적 자아 발견을 목표로 하는 불교적 배

움과 수행에 의탁하는 길 이외에는 특별한 처방책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간 서구 종교인들이 미신이라고 폄하했던 바로 그 불교가 정신장애를 치유하는 산실이 되며, 도덕 불강증이 된 이 사회를 구원하는 도장이 됨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5월의 청소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섭취해야 할 영양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를 건강케 하는 음식물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발견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을 완성케 하는 수행과 자기성찰의 길입니다.

인도의 시달타 태자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생노병사와 부조리한 사정계급 그리고 대립과 분쟁의 사회를 구제코자 큰 이상(理想)을 세운 깨침을 얻어 해결한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도 분단된 국토와 그리고 혼란한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의 온갖 어려움을 구제하겠다는 큰 이상을 일으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문화재 정책

문화재청은 5월 12일 인제 봉정암 오층 석탑을, 15일 의성 대곡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상불좌상은 보물로 지정했다. 한 주동안 3건의 불교문화재가 보물로 지정 혹은 지정예고가 된 것이다. 그 만큼 가치가 높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인 행정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왜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보수 정책은 쓸데가 없다. 일반 언론에 대서특필된 승례문과 청성대를 비롯해 전 문화재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수?보존 처리 결과는 세월호 수준이다.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반면, 문화재 주변 전시관 건립, 화장실 개축 등 주변 정

비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 투입 기준이나 매뉴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 문화재 보수 예산의 22.9%인 908억원이 문화재 보수에 쓰인 반면 51.7%인 2053억 원이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에 쓰였다. 아무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jem'에서 'jem'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문화재 보수보다 주변 정비 사업이 우선이지는 않는다.

현재 보수가 시급한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만 79건에 달한다.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문화융성'은 현대 문화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전통문화라는 초석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융성'은 커녕 '몰락'될 수 있다.

세월호의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있다. 문화재 정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중첩 규제는 불교문화 발전의 장애물

그동안 불교에 대한 중첩 규제는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큰 장애물로 작용돼 왔다. 전통사찰 등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고 문화재보호법은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소유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문제가 돼 온 규제 법령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자료집이 제작돼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에서는 중첩 규제 법령 총 18개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령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은 전통사찰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와 △자연공원법 제36조 △전통사찰 건축법 적용 제외 △사찰 내 장

사구역 설치 △봉안당, 자연장지 상한선 제한 폐지 등을 정지권에 요구했다.

문화재 사찰과 전통 사찰은 불교적 유산을 넘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보고이다. 규제 만능주의에 묶여 가장 힘든 숨을 내쉬는 존재가 돼서는 안된다. 자료집에서 제한된 내용들은 실제 규제이기도 하지만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유무형 문화재 보존 노력을 확대하고 사지 복원 조사 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적극 활용, 안내 표지판 일제 점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자료집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불교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만들었고, 전국 사찰과 국회와 주요 정당에 배포했다고 한다. 자료집 발간을 통해 스님들은 후보자들에게 정책 기조를 제안하고, 후보자들은 전통문화 발전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 추모·애도하며

아들아 딸아 어서 가자 우리집으로 돌아가자

(팽목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여인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쓴 시)

이부자리를 깔아주던 효자아들은 어디로 갔느냐

지난 겨울에 에미를 위해 딸기를 사오던 이쁜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금쪽보다 귀한 내 새끼가 차디찬 바닷속에 갇혔으니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제발 돌아오라고 울부짖는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무심하고 영험이 없으신지...

온 나라가 초상집이고 모든 국민이 상주되고 조문객이 되어어도

자식 잃은 에미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애타는 마음 더해진단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약이 없어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무정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어이없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나

에미가 아빠와 함께

너를 찾아 진도 앞바다에 왔다

친구들은 편이라도 보듬고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너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아들아 딸아



어서 가자 우리집으로 돌아가자

평소에는 에미 말을 잘 듣던 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길래

끔찍도 않고 에미의 말을 걸러서 애간장을 녹이느냐

불러도 불러도 알도라랴는 내 새끼는 끝까지 대답이 없고

진도 바다는 에미 원승이의 울부짖는 메아리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보고 싶구나 사랑했다 아들이 에미 곁에 있어 그 동안 행복했다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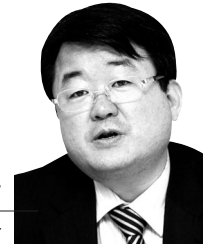
내 딸이 없는 올 오월 팔일 어버이날은

지독히 잔인한 날이구나

오! 보고 싶다 내 아들아 딸아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문학박사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개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